

연중 제14주일
복자 김신부 외부행사

기도서 P. 383 B해

- 제1독서 (에제키엘 2, 2-5)
- 제2독서 (고린토후서 12, 7-10)
- 복 음(마르코 6, 1-6)

숨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칼론



당 달 봉사

안 응 기 신부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어진지 오래지만, 십여년 전에만 하더라도 연료를 장작이나 산골을 땀배에는 질척지 않게 길거리에서 가끔 팽과리를 치고 다니는 직업인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잡풀의 재로 방고래가 맥힐때면 짙어 주고 방을 다시 따뜻하게 하여 주는 직업인이다.

레지오 마리에카 광주에서 전주로 이직하려 할 때 신심이 두터운 교우분들이 견학을 하였던 모양이었다. 그 중 한 분의 회장님의 말씀: "학사님 참 놀랐어요, 단장님이 방고래를 쐬시는 직업인이고 단원들은 판사, 검사, 법조인들로 구성되었는데 단장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명하잖아요."

사회가 부패하고 사람이 부패할 때마다 있을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돈과 학식과 권력과 관직을 그 사람의 인격화하여 보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계속되어 가는 사회는 돈이 흠을 주고 권력의 칼이 제멋대로 휘저어 많은 착한 사람이 몸을 다치고 희생이 되기 마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당시 예수님의 고향은 팔레스틴의 북부 갈릴레아이기 때문에 그리 좋은 지방이 아니었다. 이교인들과 접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집안도 그저 초야에 묻혀 사는 목수의 아들이었다. 이런 지방과 가문에 있는 분이 메시아로 나와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하니 그네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어느 나라에도 속박을 받지 않고 세상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지만 그리스도는 법제계의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하였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랑이고, 참 하느님이시다.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외적인 것에 눈이 어두운 이상 진실한 것을 진실로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인 것이다.

(주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그러면 그렇지!

국세청은 자가용 승용차 개인명의 소유자 8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적인 소득 추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만 해서 자가용 소유자의 47%가 소득신고를 안했다 한다. 국세청 당국자는, 자가용을 운행하려면 월간소득은 운전사를 둘 경우 월 1백만원, 소유주가 직접 운전할 경우 월 50만원이 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부동산·학원 등 자유업 소득자나 부녀자·미성년자 등의 명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소득 추적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79년 6월 26일자 東亞日報에서)

퍼 좋은 착상이고,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믿어 박수를 보냈다. 또한, 많은 자가용 소유주들이 차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보도가 있어 정말로 잘한 일이구나 하고 여겼다. 그런데, 사흘뒤의 보도에는 무언가 예측할 수 있는 앞날을 보는 느낌이어서 "그러면 그렇지!"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국세청은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세 원천 추적 조사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김청장은 무차별 추적이 탈세를 빚어, 환문조사 방법을 간접조사 방법으로 바꾸고, 꼭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조사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각 일선 세무서장에게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아동 및 부녀자 이름으로 차량소유 등록을 한 경우에도 동거하는 가족의 소득수준이 사회통념상의 기준을 넘어서면 소득세원의 탈세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79년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

글세다. 아버지가 소득이 많다고 해서 소득도 없는 아들이 자가용을 꿀릴 수 있을까? 기름도 없는 나라에서... 또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찌되는 것일까? 정부의 고관과 업자의 압력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면 그렇지...

숨 정 이 산책





주의 충실한 병사이며 참된 시민임을 증거하십시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복자 김대건 신부의 축일을 지내며

30년전인 1949년, 한국 천주교는 복자(福者) 안드레아 김대건신부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받들고, 7월 5일을 김신부의 축일로 정했다.

1821년 순교자의 집안에 태어난 김대건은, 그 뛰어난 재주와 굳센 기질과 열심한 신덕으로 15세에 신학생으로 뽑혔다. 이역만리 마카오 유학의 어려움, 나무가 뻗직한 높은 산속을 제멋대로 달리는 호랑이·범·곰·이리를 친구삼은 두만강의 얼음벌판에서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선 끝에, 1845년에 사제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는 그 이듬해에 장렬하게 순교했다.

그 당시는 한 사람의 사제를 얻는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사제양성 후원사업을 벌이는 요지음, 김대건 신부의 편지등을 다시 읽으며 무언가 새롭게 다짐해 보자.

□ 일어나서 걸어라!

굳센 김대건도 2일전부터 한 알의 밥조차 먹지 못하고 있었으니만큼 힘에 지쳐 눈속에 쓰러져 잠들게 되었다. 이때, 어디선지 “일어나서 걸어라”는 소리가 들리는 한편, 하나의 그림자같은 것이 나타나서 캄캄한 어둠속에 찾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았다. 뒷날에 김대건은 이 일을 “꿈처럼과 의로움에 사로잡혀 흥분한 정신의 작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으나, 하여간 나는 천주님의 섭리로 구제된 셈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떨어져 죽어버렸을 거니까요”라고 하였다 한다.

□ 어머니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는 어머니님 울술라를 주교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10년동안이나 같이 있지 못하다가, 겨우 몇 일동안을 자식과 만나는 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도 못가서 그 자식은 다시 떨어져 갑니다. 원컨대 주교님은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편지의 사연으로 보아 김신부가 겪은 절고 위험한 여행이나 온갖 괴로운 외국의 생활, 그에게 닥쳐온 죽음도 그의 깊은 효심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우리들은 천주의 은혜로써 이 세상에 나고, 다시 큰 은혜로써 성체를 받고 성교회의 한 사람으로 되어 귀여운 이름을 받들고 있는 것이오나, 그러나 그에 어울릴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름만이 무슨 쓸매가 있으리요. 다만 입교한 보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배교자(背敎者)로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바 은총이 풍부하면 그럴수록 천주께 대하여 무서운 망은(忘恩)으로 되는 것입니다.

재앙에 겁내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천주를 섬기는데서 물러나지 말고, 오로지 성인들의 자취를 밟아서 성교회의 영광을 누리고 주의 충실한 병사이며 참된 시민임을 증명하여 주시오. 비록 당신들은 수가 많다 하여도 마음은 하나로 되어 주십시오. 사랑을 잊지 마시오. 서로 참고 도와서 천주가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를 기다리시오.

박해라는 것도 천주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는게

아니오. 마땅히 천주를 위하여 힘차게 참아 주시오. 오직 성교회에 평화를 주십시오 눈물로써 탄원하십시오. 나의 죽음은 당신들에게 확실히 뼈아픈 일일 것이오. 당신들의 영혼은 슬픔에 잠길 것이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주께서는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목자를 주실 것이 틀림 없으니, 그리 몹시 슬퍼마시고 큰 사랑을 가지고 천주를 섬기도록 힘쓰시오. 사랑으로써 한 몸, 한 마음이 됩시다. 그렇게 하면 죽은후 영원히 주의 앞에서 서로 만나 끝없는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 나는 천번이고 천번이고 이를 바랍니다.”

□ 마지막 설교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오. 내가 외국사관과 통한 것은 오직 종교를 위해서입니다. 천주를 위해서입니다. 그 천주를 위하여 나는 죽어갑니다. 여기서 영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얻고자 생각하시면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천주는 당신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끝없는 괴로운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 자, 나의 목을 잘라라!

김신부가 설교를 하고 나니 군졸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습관에 따라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는 물을 뿌고 흰회를 발랐다. 그리고 두 명의 군졸이 김신부의 양쪽 겨드랑이에 두 개의 몽둥이를 끼어 넣어 앞뒤에서 걸머메고 군졸의 등근 진(陳)의 바깥쪽을 세차레나 빨리 돌린 후, 신부를 끌어앉히고 한 가닥의 밧줄로 신부의 머리칼을 동여매어 그 한 끝을 사형대로 쏘 말뚝에 꿰린 구멍에 끼어 잡아당기니 신부의 얼굴은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래도 신부는 태연하여 눈썹조차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몸가짐이 이러하면 좋으나? 쉽게 자르겠느냐?”

“무어, 좀더 똑바로 하여라. 아, 그만하면 됐다.”

“자, 나의 목을 잘라라. 준비는 다 되어 있다.”

이리하여 12명 정도의 회자수(회자手)가 시퍼런 칼을 휘드르며 자르는 흉내를 하면서 신부의 주위를 빙빙 돌 아 달리다가 각각 한 칼씩 내리치니, 여덟번째의 칼날에 신부의 머리는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상 柳洪烈 지은 韓國 天主教會史에서 뽑아 적음)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 5943·8629

이리 경 문 학 원

원장 한 정 상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이라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한 등 암 (모이세)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구사 ④ 3032 이리 8629



스터디 데이?

—자주성 잃은 학사님은 생명잃은 학사님

김 병 엽 신부

요새 대학가에는 재미있는 새 용어가 하나 생겼다. 스터디 데이(study day). 6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다음주에 있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습하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까마득한 옛날은 아니지만 모(某)당에서 연료가 없으니, 여름이 더울지만 좀 길게 공부하고 겨울방학은 길게 한답시고 겨울방학을 다른 해보다 1~3일가량 빨리 한 적이 있다. 그때 대학가에는 시위가 이곳 저곳에서 일어났었고,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술렁이고 있었기 때문에 세살 먹은 동자라도 직감적으로 아니 느낄자 아무도 없었다.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학원을 그리 쉽게 정치의 도구화하니. 이 나라의 장래는 희미한 불빛”이라고 한탄을 하였었다.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적에, 교황대사께서 새로 부임하시거나 어느 교구장님이 새로 임명되시면 신학교에 인사차 오신다. 우리는 축하식을 갖는 가운데 하루의 휴일을 달라고 축사속에 어리광을 부린다. 교황대사님이나 주교님께서 학장신부님의 허가를 얻어 우리에게 하루의 휴일이 안겨졌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까? 미국 대통령 카터가 온다니까 한주일 전에 축하의 휴일을 주고 무슨 면목이 없으니까 스터디 데이(study day)라는 말을 미화시키다니.... 제1차 세계대전때, 알사스-로렌의 치열한 전투와 독일 대학생들의 분기의 일화도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전투에 참가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전투에서 지는 일이 있더라도 장래의 독일을 위하여서는 공부하는 일”이라는 교수들의 말에 학생들은 그대로 순응하였다는 예가 있지 않은가?

교육을 통해서 자주성이 길러져야 한다. 이 자주성을 상실할 때는 이미 죽은 교육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다. 그 시대가 부패할 수록 위정자들은 그네들의 정책에 도전할까봐, 자주성을 상실하게 하는 순종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미국 땅콩 장수의 방귀가 그렇게 크단 말인가? 아니 그보다, 그 코쟁이에게 손을 붙곤 쥐며 외치는 젊은 사자의 포효가 무서워서 나라의 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휴교를 시켰다는 망국의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끔 외국의 대통령이 방문할 때 젊은이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자기 나라의 권익을 위하여 테모하는 광경을 보아왔다. 외국의 손님이 왔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게 실례라는 말인가? 사실 문제는, 자기와 나라의 현실정과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설사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담력이 적은 무사안일한 그 생태가 너 문제인 것이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위한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요심이 (310) 김병오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겨 놓은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대학생들에게는 조기 방학의 선물

그렇지 좋은 선물이지 우리 카터대통령께 부락해보자

9월에 다시 우리나라에 오쇼 방학하여 놀게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우대 태 광 사 주 유: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⑥ 6346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연 중앙시장통

(전화 ③ 4577, 5789)

여름을 시원하게 하는 신일선풍기!

신일선풍기는 (금, 은, 시계)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성(아오스당)

□전주시 서노송동 646 육교연

☎ ③ 3252

소비자보호에 관심있는분 상담환영!

신세계 시계점(신장개업)

금·은·보석·각종시계
(신용판매·책임수리)

①제(조직)판매환영 ②월부, 납품

③교우, 학생 특별혜인

장소: 동문사거리 전화: ⑥6718

장 상 준 드림

전기·산소용접·샷다·샷시·철재
냉납방막트·합성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주 광고·공업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③ 1585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역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계)

☎ 2-3301 (자택 2-8548)

※ 교우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세운식당

전화 ⑥ 8530

군산시 신창동 신생그릴 앞

주 황베르니카(기부)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신부·수녀연수회...12<목> 오후 2시~14일<토> 오후 1시 30분, 가톨릭 센터
장사: 서인석 신부(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교수), 참가비-5,000원
2. 군산지구 대학생 연합강연회...12일<목> 오전 9시, 관마성당에서
3. 농민회 지도자 연수회...16<월>~19<목>, 고산성당에서
4. 대신학생 하기 콘퍼런스...8<일>~11일<수>, 지리산 뱀사골에서
5. 2지구 울드레아...8<일> 오후 3시, 월명동 성당에서
6. 여자 쟀 모임...8<일> 오후 2시, 성심여고에서

□ 7·6사태 1주년!!!

짓밟혔던 인권과 교권의 수모일을 맞아, 아직도 수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양심수인(良心囚人)과 위국인사(爲國人士) 가난한 형제들을 기억하고 더 많은 기도와 우리의 사명의식을 제 다짐합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3874 보좌 신부 정태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구리아: 8일<일> 오후 2시(강당)
 2. 청년합창단: 8일<일> 저녁미사 후(강당)
 3. 예비자교리: 7월에는 없음
 4. 유치원 방화: 14일<토> 오전 11시
 5.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221,263원

2. 반장회의: 10시미사 후
3. 수요일기도회: 11일 8시 30분
4. 미사때 성가책 꼭 지참
5. 본당 유지비 중간(6월말)결산
총수입-4,241,092원, 총지출-4,055,762원
잔고-185,330원

(노충동)

전화 ⑩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김성복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신우회 정기총회: 오늘 저녁미사 후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토요일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특히 세미나를 받으신 형제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2,005원

(술집이)

전화 ⑩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갈호

1. 성모회 월례회: 7월 15일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어린이 부모님께 알리는 말씀
주일학교에 매주 빠짐없이 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0여명 어린이들이 두손 모으고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고 슬라이드도 보며 재미있게 교리공부도
합니다. 아직도 어린이 미사책 없이 나와 열친구책을
넘어다 보는걸 보면 참 딱합니다. 미사책 많은 학
교책과 같이 꼭 사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8월초에
하기 복음학교가 열립니다. 이번 교재는 신약에 관
한 책으로써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한권씩 사주서
야겠습니다. 교재대금은 1학년~3학년까지 300원,
4학년~6학년까지 400원입니다.
무부모로 수교하시는 교리교사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교재를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주 신축금 내신부: 정주복선생님 250,000원
- 지난주 봉헌금: 154,790원

(덕진)

전화 ⑩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복성
사도 회장 유복성

1. 예비자 교리: 주일 10시미사 후
수요일 저녁 8시
 2. 설렘세미나: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한분도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합니다
 3. 신부님 영명축일 협조 감사합니다
 4. L.M 마리아 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기도합니다
 5. 학생미사시간 변경
주일 오전 8시30분,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6. 6월말 유지비 중간결산 보고
총수입: 4,561,247원, 총지출: 4,496,829원,
잔액: 64,419원
- 지난주 봉헌금: 20,210원 교무금: 147,490원

(전동)

전화 ⑩3222 주임 신부 김병익
보좌 신부 유병석
사도 회장 유병석

1. 자모회: 10시미사 후
 2. 장우회: 저녁미사 후
 3. 성화회: 10시미사 후
 4. 성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5. 선봉기 회사금 감사합니다
유석중, 안득수, 이종두, 김중오, 장금배, 유종현,
김병오, 박성호, 이병식, 박순기, 장문수, 김용욱,
이현재, 유영준, 유춘순, 한규화, 강해룡, 문혜준,
조일주, 홍요안나, 이덕수, 김병엽, 김기수, 최덕순
성심유치원, 이상현, 신종순, 민선희, 장애자, 김명
신, 유정자
- 지난주 봉헌금: 306,265원

(복자)

전화 ⑩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박성호

1. 성모회 월례회: 7월 22일(야외행사)
장소: 상관천 유사 임종율: 조영호, 이기배형제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인성회: 실제 영화 상영으로 총수입-86,400원,
지출-61,400원, 지출: 25,000원
많은 협조에 감사합니다
 3. 환등기 상영: 매주일 공식미사 후(강당에서)
 4. 예비자교리: 매주일 공식미사후, 히데레사씨 지도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후 박신부님 지도
 5. 중·고생미사: 매주일 오전 9시
학생들은 9시미사에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3시
국민학교 학생들을 꼭 보내주세요
 6. 미사시간 늦지 않도록: 성서, 공동체 성가집, 카톨릭
성가집, 기도서 지참
- 지난주 봉헌금: 198,310원 교황 주일헌금: 66,450원

(파티마)

전화 ⑩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 7·6사태를 잊지 말고 우리의 결의를 확고히 합니다
1. 성령기도회: 매주<수> 저녁미사 후
열의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우리의
믿음을 살찌웁시다
 2. 어머니미사: 매주<금> 오전 10시
1주일에 한번 어머니들을 위한 특별미사 있음
꼭 참석하세요
 3.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수녀님께 연락하세요)
 4. 신용조합 소식: 파티마 신용조합이 발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분들의 참여가 극히 소수
입니다. 우리 모두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됩
시다
- 지난주 봉헌금: 88,470원

(서화동)

전화 ⑩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규

1. 선교주일: L.M 간부회